



주님처치가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22일 오후 4시에 Sonora High School에서 거행했다. ©기독일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처치, 창립 1주년 감사예배
장로 은퇴찬하 및 신천 제직
임직식 개최

주님처치(최현규 목사)가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22일 오후 4시에 Sonora High School에서 거행했다. 이날 예배는 장로 은퇴찬하 및 신천 제직 임직식도 겸해 진행됐다.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고 목사는 이날 미국의 대형 기독교 기업인 ‘하비로비(Hobby Lobby)’의 사례를 통해 신앙의 가치를 지켜낸 믿음의 싸움을 전했다. 하비로비는 미국 전역에 천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전문 체인점으로,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기업이다. 그는 “오바마케어 시절, 기업이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강제되는 조항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승소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만약 패소했다면 1백만 달러의 손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이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간 결과”라고 강조

했다.

이어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현실만 바라볼 때, 우리는 쉽게 주저앉고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시간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광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도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며 “우리 역시 믿음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인내해야 한다. 3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주님처치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신앙의 길은 얼마나 가느다보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침 벨음과 채찍질, 가시 면류관과 온갖 수모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자”고 말했다.

장로로 임직한 정성범 장로는 새로

운 직분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정 장로는 “이번 임직을 통해 새로운 직분이 제게 주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 제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제는 자신을 내려놓고, 정성껏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겠다”며 “사랑과 자비, 양선과 온유, 절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장로는 “주님처치가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주님처치의 성도들은 UMC의 소속된 남가주주님의 교회에 파송된 최현규 담임 목사 파송 통보에 반대해 작년 6월 주님처치를 설립하고 라하브라 소노라 고등학교 강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UMC의 동성애 수용 등 진보적 성향에 반대해 새 교회를 설립한 것이다. 토마스 맹 기자 주님처치 주일 예배 장소 소노라 고등학교(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텍사스주, 공립학교 십계명 제시법 9월 1일부터 시행

그레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6월 21일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상원 법안 10’(SB 10)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애벗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는 미국의 꿈이 살아 있는 곳이다. 오늘 나는 텍사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가 이 주에서 건설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안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상원법안 11(SB 11)과 상원법안 965(SB 965)에도 서명해, 학교들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학교 시간 내에 기도하거나 종교 문헌을 읽을 수 있는 자율적인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보수적 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케네디 대 브레튼 학군 사건’(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판례를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판례는 죽구 코치가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에서 기도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텍사스 밸류스’(Texas Values)의 조나단 사이엔즈(Jonathan Saenz) 회장은 “십계명 기념비에 대한 소송을 대법원에서 성공적으로 끌어 한 경험이 있다. 강해진 기자

미 종교자유위원회, 첫 회의 소집

미국에서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종교를 억제하려는 세속주의 단체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댄 패트릭(Dan Patrick) 텍사스 부지사가 주재한 ‘대통령 산하 종교자유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Religious Lib-

erty) 첫 회의가 6월 16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성경박물관(Museum of the Bible)에서 열렸다.

이 위원회는 향후 2026년까지 최대 9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종교 자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진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 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마동환 변호사 그룹
마동환 변호사 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 그룹 | 213.820.3704
MARC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CONGRATS, GRADUATES!

APU MICA RUTGERS UC BERKELEY UCI U OF I URBANA
BIOLA MOUNT ST MARY'S SANTA CLARA UNIVERSITY UC DAVIS UCSD UNIVERSITY OF PITTSBURG
BOSTON UNIVERSITY NORTHEASTERN SCAD UC MERCED UCSB U OF M TWIN CITIES
DREXEL UNIVERSITY NYU ST LAWRENCE UNIVERSITY UC RIVERSIDE UCSC U OF WASHINGTON
FORDHAM UNIVERSITY PARSONS SYRACUSE UC SANTA CRUZ U OF ARIZONA FLAGSTAFF UNIVERSITY OF THE PACIFIC
LMU PEPPERDINE TEMPLE UCLA U OF I CHICAGO VIRGINIA TECH



Now Enrolling for the
2025-2026 School Year!
(213) 487-5437
ncahuskies.org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제7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풍성한 은혜 속 성료

4개 교단, 12개 교회, 78명 참가
AI 전문가 강사로 참여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은 자체적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들을 돋기 위해 지난 6월 16일(월)부터 18 일(수)까지 2박 3일간 제7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Trust in the Lord’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4개 교단 12개 교회에서 78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영적 성장과 공동체 훈련의 시간을 제공했다.

올해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음악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가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이 자체적으로 여름 청소년 수련회를 열기 힘든 교회를 위해 지난 6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에서 제7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Ken Chung(Head of Growth Engineering at HeyGen)이 세미나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신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

했다. 주최 측은, “작은 교회의 경우, 청

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눌 를 모델이 없는 경우가 있다. 연합수련회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세미나 강사를 통해 이런 기회를 제공했고, 전문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는 삶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비신자를 포함해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타민족 청소년들이 다수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수련회의 모든 비용은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가 후원했다. 또한 행사의 전 과정과 프로그램을 위해 나성순복음 교회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섬겼다. 이윤준 기자

GIFT, 제1기 ICF 자격증 과정 성공적 마무리

9월 2일 제2기 과정 개강
7월 8일·8월 4일 온라인 OT

임상심리학자 리디아 전 박사(원장)와 조셉 전(전달훈) 박사 부부가 공동 설계한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가 지난 6월 21일(토), 제1기 국제코치연맹(ICF) 자격증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총 1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제1기 과정은 2025년 2 월 25일에 시작되어 16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현지 는 물론 한국과 선교지에서도 수 강생들이 참여했다.

정규 수업은 6월 10일에 종료되었으며, 6월 21일에는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1기 수료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과 축하 파티가 열렸다.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는 상 담, 코칭, 의학을 통합한 독자적인 접근 방식으로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돋는 코치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기 수료생들은 ICF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을 습득함은 물론, GIFT만의 통합적 코



제1기 국제코치연맹 자격증 교육과정 수료생.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

칭 모델을 통해 자기 성장을 경험 했다. 학교는 수료 이후에도 이를 이 전문 코치로서의 여정을 지속 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멘토링, 후속 교육,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 티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 을 예정이다.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제 2기 ICF 자격증 과정은 오는 9월 2 일 개강한다. 이에 앞서 과정에 대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 7/8(화), 8/4(화) 저녁 7시 30분에 Zoom을 통해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및 등록: www.giftcoachin-ginstitute.com, 714-298-1115

제3회 평강 블레싱 콘서트 클래식과 찬양의 어울림

평강교회(송금관 목사)는 7월 12일(토) 오후 5시, 사우스파사네나에 위치한 평강교회 본당(606 El Centro St)에서 제3회 ‘평강 블레싱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밤도, 주님께 시선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깊은 영적 감동을 선사하는 예배의 무대이자 복음의 통로로 기획되었다.

무대에는 정통 클래식과 찬양 사역이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테너 오위영, 소프라노 김경미, 이영희, 김현주, 메조소프라노 원순일, 베이스 김성현, 피아니스트 김주영 등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

이 그릴 핫도그와 수제 살사, 나쵸, 커피, 다양한 음료가 제공되며, 어 름 저녁의 더위를 식히고 이웃과의 따뜻한 나눔을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신미쉘 기자



다. 그릴 핫도그와 수제 살사, 나쵸, 커피, 다양한 음료가 제공되며, 어 름 저녁의 더위를 식히고 이웃과의 따뜻한 나눔을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소: 평강교회 본당(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문의: 213-393-9136

→ 1면 기사 <美 종교자유위원회>에 이어서

패트릭 부지사는 “이 위원회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보고하는 것”이라며 “종교 자유를 위해 진지하게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벤 카슨(Ben Carson), 방송인 필 맥그로(Dr. Phil)를 비롯해 법학자, 종교계 인사, 법조인들이 참석해 종교 자유의 역사적·법

적 중요성과 현대 사회에서의 도전 과제를 논의했다.

가톨릭대학교 마크 리엔치(Mark Rienzi) 교수는 “과거에는 종파 간 충돌이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무신론자와 세속주의자들이 정부를 이용해 종교적 견해를 억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노트르담대학교 제럴드 브래들리(Gerald Bradley) 교수는 제임스 매디슨의 1785년 저서 『종

교에 관한 메모리얼과 항의서』(Memorial and Remonstrance)를

“미국 종교 자유의 마그나카르타”라고 칭하며, “종교의 본질은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유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백악관 신

앙자문실을 맡았던 폴라 화이트-

케인(Paula White-Cain) 목사도 “

신앙 때문에 해고된 직원들, 은행

계좌가 폐쇄된 종교단체들, 권리를 무시당한 부모 등,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낙태시술소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23명의 생명운동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해야 했다는 사실을 누가 예상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세속주의 단

체 ‘미국정교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은 이 위원회에 대해 “진정한 종교 자유가 아니라 기독교 민족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이첼 레이저(Rachel Laser) 대표는 “회의 장소부터 위원 구성, 발언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국이 베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국가였다는 잘못된 신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제: 교회와 가정 연계를 통한 삼대 동일 신앙 세우기

삼대 동일 신앙 목회 세미나 (신6:2) 2025



(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기획)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노회 노회장

주최: 미주 기독일보, 미주 3대 동일 신앙 연구소(3rd Generation Same Faith Research Center in USA)
문의: 김영호 목사(213-590-9885), 김갑선 목사(213-407-4524), 기독일보(213-434-1170)

강의시간 안내

- | | |
|-----------------|--|
| 오전 10:00 ~12:00 | 삼대가 함께한 세대 통합 예배 |
| 오후 12:00 ~ 1:00 | 점심시간 |
| 오후 1:00 ~ 2:45 | 삼대의 기본 튼튼 신앙 세우기,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
| 오후 2:45 ~ 3:00 | Break time |
| 오후 3:00 ~ 4:00 | 3년 커리 만들기 |

■ 날짜: 2025년 7월 28일(월)

■ 장소: LA소망선교교회(김영호 담임목사)

3511 W Olympic Blvd #3FL, Los Angeles, CA 90019

■ 등록: QR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다음 세대 위한 전심전력...VBS로 심는 복음



방학이 시작되면서 남가주 한인교회들은 “Magnified!, Discovering the Bigness of God in the Smallest of Things”, “Keepers of the Kingdom”, “True North”, “Live It Out”, “At Camp Promised Land” 등의 주제로 여름성경학교(VBS)를 진행하고 있다. ANC온누리교회는 “Magnified!”(시편 34:3)를 주제로 6/18부터 6/20(수-금) 까지 VBS를 개최했다. 첫째날 오후 6시 VBS에서 엘리자베스 김 목사는 마가복음 4:1, 35-41절 예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작은 것들도 돌보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했다. © ANC온누리교회

WebBridge 교회 탐방기

생명의 기운 가득한 명품교회

김정호 목사 담임 가스펠교회

주일 아침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수준 높은 찬양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예배를 시작한 줄 알았다. 네 사람으로 구성된 성가대의 찬양 연습이었다.

예배가 시작되자 또 다른 색깔의 찬양이 이어졌다. 담임 목사님과 찬양단이 함께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다.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김정호 담임 목사는 전문 성악가다. 그런데 찬양단과 성도들의 찬양이 김정호 목사의 찬양에 비해 손색이 없었고, 찬양은 은혜롭고 더 뜨거웠다.

예배는 잘 준비되어 물 흐르는 듯 진행되었다. 찬양과 예물 드림, 친교 그리고 말씀이 조화로왔다. 잘 준비된 예배는 성도들 마음을 열게 했다. 대표 기도를 담당한 집사님은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충분히 묵상한 듯했고, 성도의 마음



가스펠 교회. ©기독일보

을 잘 뚫었고, 특히 목사님의 설교와 연결된 기도가 참 좋았다. 예배의 암권은 김정호 담임 목사의 설교였다.

그의 설교는 성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QT 본문에서 발췌된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다.

깊이 있는 본문 연구와 묵상으로 준비된 성도의 삶을 터치했다.

예배당 곳곳에서 들려온 “아멘!”은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에 대한 살아 있는 영혼들의 반응이었다. 예배를 탐방하며 큰 은혜를 받았다.

젊은 목회자의 뜨거운 가슴과 섬세

하게 말씀을 준비한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다.

친교의 시간은 가족 같은 따스함

과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풍성한 사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 앞둬

6/26일~ 28일
캘스테이트 롱비치

밀알선교단은 매년 여름 서부지단(남가주, 북가주, 밴쿠버) & ANC온누리교회 장애인 부서 GM 연합으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칼스테이트(CSU) 롱비치 캠퍼스에서 6월 26일(목)~28일(토)까지 2박 3일 간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사랑의 캠프 주제는 장애인들과 봉사자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금을 다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Run for the Prize(믿음의 경주)’로 정했다.

사랑의 캠프 첫날은 개회예배 후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종식

과 성찬식이 거행된다. 둘째날은 참가자들을 성인팀과 아동팀으로 나누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수영, 장기자랑, 댄스파티 등이 이어지며, 또 캠프 주제에 맞게 마라톤, 사이클, 수영 등 ‘철인삼종경기(Triathlon)’를 약식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날은 텁별 공연과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가진 후 폐회예배를 끝으로 2025년도 사랑의 캠프가 막을 내린다. 김민선 기자

남가주밀알선교단: milasca.org/



→ 3면 기사 <가주 상원, 한국 전쟁>에 이어서

최 의원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장병들의 이름은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에 위치한 힐크레스트 공원의 한국전쟁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며 “이 엄숙한 기념일에 우리는 평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며, 역사를 기억해야 할 우리의 책무를 다짐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미국인과 한국인 모두의 희생 덕분에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한인으로서 유엔깃발 아래 우리와 함께 해준 미국과 21개국의 연합군에게 깊은 감사 를 전한다. 국제적 동맹국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니 스트리랜드 36지구 상원의원을 비롯해 총 7명의 상원 의원들이 결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SR49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가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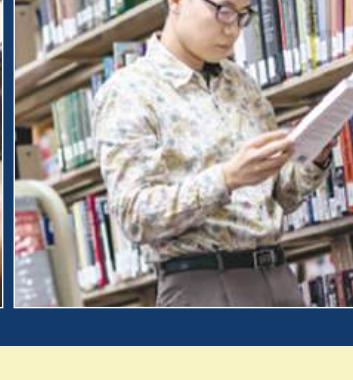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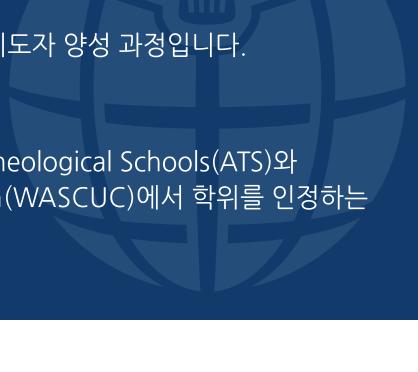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 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 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
9
2
3
기억하겠습니다

75년 전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삶을 이어오신
한인 시니어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센터메디컬그룹의 돌봄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 센터메디컬그룹

문의연락 888-847-3098

나이지리아 풀라니 무장 세력, 이주민 대피소 공격... 최소 100명 사망

현지 성직자들 “경찰의 대응 능력 부족”

나이지리아 베누에주에서 풀라니 무장 세력에 의한 최악의 공격이 발생, 수많은 남녀노소가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타 사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100명 이상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공격은 6월 13일(이하 현지 시각) 오후 10시경에 시작됐다가, 당초 나이지리아 보안군에 의해 일부 저지됐으나, 무장 세력은 결국 목표를 변경해 마켓을 공격하기로 했다. 당시 나이지리아 경찰은 무장 세력의 공격을 저지할 충분한 장비와 지원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가톨릭 성직자들은 경찰의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공격은 내부 이주민(IDP)들이 대피해 있던 선교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장 세력은 이전 공격



나이지리아 베누에주 구마 지역 엘레와타 마을의 파괴된 건물. ©CSW 제공

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를 불태우며 민간인들을 공격했다. 선교지에 대피한 IDP의 수는 400명에서 700명 사이로 추

정되고 있다.

공격자들은 이슬람의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가장 위대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격을 감행했

다. 이 사건은 풀라니 무장 세력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그 규모가 특히 크고 잔혹한 수준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풀라니 무장 세력에 의한 공격은 나이지리아 북중부와 중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농민들이 주요 피해자로 꼽힌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성직자들이 납치됐고, 기독교 축제인 부활절과 성탄절 기간 동안 교회들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11년 이후 이 지역에서 5,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15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피난민이 됐다. 세계기독연대(CSW) 나이지리아 지부의 윤우사 음마두(Yunusa Nmadu) 대표는 “베누에는 한때 나이지리아의 식량 바구니라고 불렸던 지역이지만, 현재는 무장 세력들의 공격으로 인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말로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단호한 태도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혜진 기자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 “예수는 하나님” 신앙고백 눈길

‘죽음은 끝 아닌, 또 다른 현실로의 전환’ 강조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기록한 인물인 김영훈(YoungHoon Kim)씨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며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

치가 276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김영훈 씨는 20일 X(구 트위터)에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어 “그리스도는 나의 논리(logic)”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자신이 연세대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을 언급하며 “신학을 모든 학문 중 최고

계속된다고 생각한다. 의식은 단순한 뇌 활동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학은 뇌가 멈추면 의식도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양자물리학은 정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 의식이 양자 정보라면,

기록으로 ‘세계 최고 IQ’를 인정받았으며, 그 이후 세계 메모리 챔피언십(World Memory Championships)과 세계 메모리 스포츠 협회(World Memory Sports Council)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네스 세계기록에서도 이를 공식 인증받았다.

또한 ‘유나이티드 시그마 인텔리전스 협회’ 창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비영리단체로, 고(故) 리처드 도킨스와 닐 디그래스 타이슨 등이 그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10월부터 ‘NeuroStory’의 창립자이자 CEO로 활동 중이다.

이 기업은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인공지능(AI), 기계 학습, 빅 데이터, 나노기술, 첨단 데이터 분석과 뇌과학 기술을 이용해 뇌 건강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김영훈 씨 트위터 캡처.

백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에서 스스로를 ‘세계 최고 IQ 기록 보유자’라고 소개하며, IQ 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적 관점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한 영상에서 그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계속된다고 생각한다. 의식은 단순한 뇌 활동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학은 뇌가 멈추면 의식도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양자물리학은 정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 의식이 양자 정보라면,

기록으로 ‘세계 최고 IQ’를 인정받았으며, 그 이후 세계 메모리 챔피언십(World Memory Championships)과 세계 메모리 스포츠 협회(World Memory Sports Council)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네스 세계기록에서도 이를 공식 인증받았다.

또한 ‘유나이티드 시그마 인텔리전스 협회’ 창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비영리단체로, 고(故) 리처드 도킨스와 닐 디그래스 타이슨 등이 그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10월부터 ‘NeuroStory’의 창립자이자 CEO로 활동 중이다.

이 기업은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인공지능(AI), 기계 학습, 빅 데이터, 나노기술, 첨단 데이터 분석과 뇌과학 기술을 이용해 뇌 건강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тен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보트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보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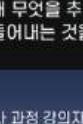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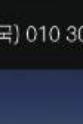
탈보트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 korean.masters@biola.edu |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보트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Minsoo Sim, Ph.D./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	 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	 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	 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	 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
 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	 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ominick Herna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9천여 명 참가 속 '2025 CCC 여름수련회' 개막

27일까지 진행... 박성민 대표 "사명 발견하길"

2025 CCC 여름수련회가 평창 휴리스파크에서 23일 개막했다. 수련회는 앞으로 27일까지 4박 5일 동안 'Seize your Season'(전 12:1)라는 주제로, 해외 24개국 참가자 250명을 비롯해 전국 40개 지구 330개 캠퍼스, 9,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수련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저녁집회, LTC와 성서강해, 선교학교 등 지구 교육, 새친구반, 선교·비전·통일박람회가 있다.

CCC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비전 템파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대학교교수선교회 교수 160여 명이 참가하는 교수 연합 선교대회를 마련한다.

첫째날 간증자로 나선 김주영 순장(연세대 3년)은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모태신앙으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에 늘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주 술자리에 나갔다. 그러나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점점 더 어두움과 상처 속에 빠지며 삶을 끝내고



2025 CCC 여름수련회가 평창 휴리스파크에서 23일 개막했다.

깊은 절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는 "그때 엄마 순장님의 권유로 고민 끝에 작년 여름수련회에 오게 됐다. 수련회 첫날 기도 시간,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죽음이 두려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저의 죄를 회개

하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경험했다"며 "수련회 이후 도시전도와 단기선교를 결단하며 저와 같이 상처받은 영혼을 돌아보는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후 CCC 대표 박성민 목사가

단상에 올라 '당신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첫째날 메시지를 전했다. 박 목사는 "과학과 이성이 발전해도 사람은 형이 상학적 존재와 연결되기 원한다. 그래서 과학이 방법을 설명해 줘도, 즉각적인 해답과 위안을 주는 MBTI, 접성술 등을 의지한다"며 "그러나 우리 마

음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온 새친구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으로 나아오길 축복했다.

이어진 기도회를 인도한 성남 지구 강수정(가천대 4년) 총순장은 "하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우리를 향해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앓아 주소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며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회 후에는 특별히 결성된 'SOONNEXTDOOR' 팀의 환영 영상이 상영됐고, 곧이어 무대에 올라 직접 만든 위십과 개사한 곡에 맞춰 무대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해 '축복해', '사랑해'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나눠 붙이며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했다.

김진영 기자

신앙 선택한 대가... 소말리아 여성, 개종 이유로 이혼·추방·살해 위협 받아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세 자녀를 둔 31세 소말리아 여성이 최근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남편과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CDI는 이 여성의 지난 3월, 소말리아 남부 키스마요 인근 자마메(Jamaame) 마을의 가족 집에서 쫓겨난 후 곧바로 남편과 이혼당했으며 그녀의 자녀들은 각각 5세, 7세, 9세로, 현재 이들과 함께 극심한 생활고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채 모닝스타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녀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며 "지난 세 달간 예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돌보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성탄절 밤, 예수 영화

를 본 뒤 시작된 신앙 여정

CDI는 그녀의 신앙이 지난 크리스마스이브, 한 기독교 사역자가 그녀와 아이들에게 '예수 영화(Jesus Film)'를 보여주면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1월 20일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결단했다.

그녀는 "남편이 100km 떨어진 주바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예수 영화를 시청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도 이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라마단 기간 이던 3월 1일, 그녀는 어머니에게 영화를 보여주었고, 며칠 뒤인 3월 4일에는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시청했다.

그녀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장면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고통을 받다니...'라는 말

이 입에서 나왔다"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놀라며 왜 우느냐고 물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심각한 불쾌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여성의 아버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알라가 보낸 선지자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 영화는 사탄이 조종하는 거짓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녀가 반박하자 그는 "이 집에는 너의 자리가 더 이상 없다. 아이들과 함께 나가라"고 했다.

협박과 도피 속에서도 신앙 지켜

CDI는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3개 월 안에 이슬람으로 돌아오고 남편에게 복귀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았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머니가 중

재를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더 격분하며 그녀와 어머니를 함께 집에서 내쫓았다. 한 달 후, 어머니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돌아갔다.

해당 여성은 지난 10일 남편으로부터 전화로 이혼을 통보받았다. 그는 이슬람 관습에 따라 "나는 너를 이혼한다"는 문장을 세 번 반복하며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이후 두 명의 친척으로부터 "배교자는 죽어야 한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고 지난 13일, 자녀들과 함께 케냐 국경 인근 지역으로 도피했다. 현재 그녀는 여러 마을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거처와 학비, 그리고 생계를 위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절실히 있다"며 "나의 삶을 바꾸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의 삶도 변화시켜주시길 기도 한다.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위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소말리아,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중 하나

CDI는 소말리아가 현법상 이슬

람을 국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종교의 전파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모든 법률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따라야 하며, 이는 비이슬람 신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슬람 율법의 주류 해석에 따르면 배교는 사형에 해당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알샤바브(Al Shabaab)는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단체는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으며, 2011년 케냐군이 아프리카 연합군과 함께 알샤바브를 공격한 이후, 케냐 북부에서 비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살해 사건이 잇따랐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소말리아는 전체 2위를 차지하며 기독교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최승연 기자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집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英 생명운동가들 “출산 직전까지 낙태 허용하는 개정안 반대”



▲ 영국 친생명단체 회원들이 총리 관저에 낙태 기한 단축 청원서를 전달했다. ⓒ 영국 생명권

영국의 친생명운동가들이 “사실상 출산 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이 개정안들은 낙태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의 안전장치들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스텔라 크리시(Stella Creasy)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NC20’은 성별 선택적 낙태를 포함해 어떤 이유로든 출생 직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낙태를 실행하기 위해 의사 2명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사망한 아기의 시신을 은폐하는 것에 대한 법적 처벌과 같은 현행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또 다른 개정안인 ‘NC1’은 토니아 안토니아치(Tonia Antoniazzi)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여성들이 출산 직전과 출산 중에 스스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들이 집에서 스스로 낙태를 시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친생명단체인 영국생명권(Right to Life UK)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험한 ‘임신 후기 낙태’를 집에서 시도하는 여성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캐롤라인 존슨(Caroline Johnson) 박사가 제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인도네시아 8세 소년, 신앙 이유로 집단폭행 당한 후 사망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리아우주 불루 람파이(Buluh Rampai) 마을에서 8세 기독교 소년이 또래보다 나이가 많은 무슬림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복강 내 감염으로 인한 맹장 파열로 사망했다고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 충격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9일 발생했다. CDI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피해자 크리스토펠 부타르부타르(Khristopel Butarbutar)는 같은 학교 5학년생 4~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그의 자전거 타이어를 고의로 평크내고, 복부와 하복부,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밤, 크리스토펠은 고열과 허리 통증, 복부 팽창 증상을 보였고, 그의 부모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크리스토펠의 아버지 김승 베니 부타르부타르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전부터 아들이 민족성과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반 학생들은 11세에서 13세 사이의 가해자들이 종교적, 민족적 모욕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이웃들은 가해자들이 크리스토펠의 생식기를 가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했다.

학교 측은 지난 5월 23일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피해 학생의 가족을 소환해 중재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가해 학생들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정년기성경부 주일 오후 2:00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 백송교회
백송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 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학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EM예배 오전 11:00
토요대예배 오전 10: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학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전 7: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30

고광선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신자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30

곽부환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기독일보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Christianity Daily

LA 백송교회
백송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꾸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장을 치료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2233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청소년부EM 오전 10:50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청소년부EM 오전 10:50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 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신승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리티노 오후 5:0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8:30
중고등부 오전 10:30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8: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3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30

기독일보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Christianity Daily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F. (310) 530-8400/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서 드려집으로 오병이어의 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정년예배) 오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EM(정년예배) 오전 6:00

주일4부예배 1부 오전 11:30

EM(정년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고창현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용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예배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www.okcrc.org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임학준 담임목사



지영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박신웅 담당목사



열반온누리교회

다임제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김한요 담임목사

천년부예배 7:30 수요예배 9:00
2부예배 9:00 새벽기도회 11:15
3부예배 11:30 주일학교 9:00, 오전 11:00
천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박신웅 담당목사



한기홍 담임목사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례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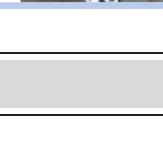
남성수 담임목사



김종규 담임목사



김종규 담임목사



신용환 담임목사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5:20(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구경모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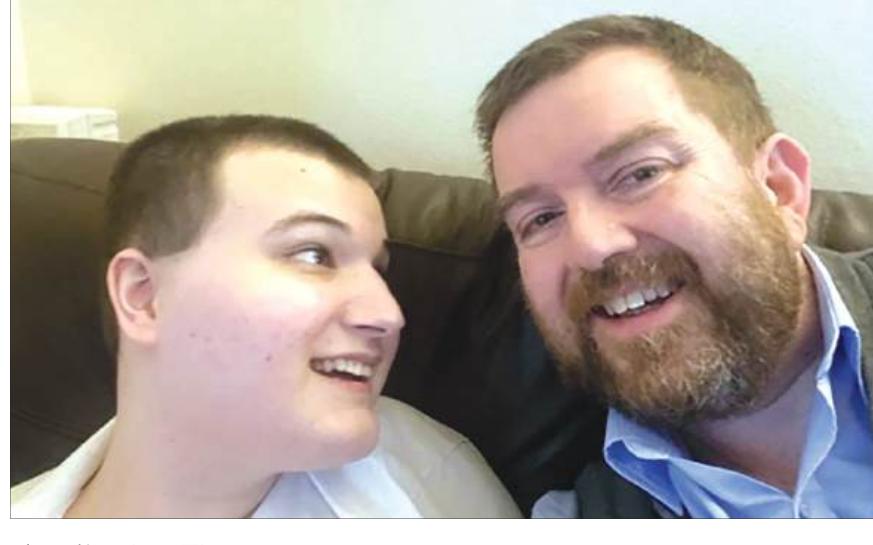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밀집강해 오후 7:30

4부예배 오전 1:45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오전 6:00

EM(Holy Wave) 오전 1:45 새벽예배 6:00(월-금) 오전 6:00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복음의 본질을 말하다



마크 아놀드(오른쪽).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마크 아놀드의 기고글인 '혈루증 여인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What the woman healed of bleeding teaches us about Jesus)을 최근 게재했다.

마크 아놀드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어반 세인트(Urban Saints)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The Additional Needs Blogfather'(추가적 필요 블로그파더)의 작가, 연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3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 3분의 2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내용이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말하고 있기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치유의 기적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신 데는 종종 이유가 있었다. 예를 들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 지붕을 뚫고 내려졌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의 죄를 사하신 후, 그를 일으키심으로써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셨다. 또는 회당 안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율법 해석을 정면으로 도전하시기도 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치유하신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신 경우도 있다. 한 문동병자에게 그려하셨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로의 팔처럼 직접 길을 떠나 치유하신 경우도 있고, 백부장의 종처럼 멀리 떨어진 이에게 말씀만으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경우도 있었다. 어떤 때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셨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예수님의 치유는 결코 무의미하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눈앞의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며,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셨다. 맹인 바디매오를 대하실 때처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치유 사건 중에서도 단연 독특한 한 이야기가 있다. 예수님이 능동

적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믿음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고, 그로 인해 치유가 일어난 사건이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 24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예워싸고 따르고 있었다. 그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겪었고, 가진 것을 다 써버렸지만 오히려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예수에 대해 들은 그녀는 무리 가운데 숨어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웃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서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느끼셨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무리가 밀치는 상황을 보며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의 손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셨다.

그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한 일을 모두 고백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 속에 살아왔다. 유행상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어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온 그녀는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직접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분의 능력을 믿고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예수님은 당시 회당장 아이로의 집으로 가는 급한 상황에서도 빌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에게 온전한 시간을 허락하셨다. 단순히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군중 앞에서 자신이 깨끗해졌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딸아"라고 부르심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신양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게 하신 것이다.

최승연 기자

LA다저스 커쇼, 구단 '성소수자의 밤' 행사서 성구 적힌 모자 착용

LA 다저스의 스타 투수 클레이튼 커쇼(Clayton Kershaw)가 구단이 주최한 '성소수자의 밤'(Pride Night) 행사에 성경 구절이 적힌 모자를 착용하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다저스 선수들은 최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무지개 팀 로고가 새겨진 성소수자 모자를 착용했다. 이는 다저스 구단이 12년 연속 진행하는 '성소수자의 밤' 행사를 일환이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커쇼는 모자 앞면에 짙은 글씨로 '창세기 9:12~16'이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착용한 채 경기장에 나타났다. 창세기 9장 12-1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약속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약속의 증거니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16절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

는 내용이다. 커쇼의 모자에 새겨진 성경구절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많은 이들은 "클레이튼 커쇼가 무지개가 실제 상징하는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켜 줬다"며 기독교적 신념을 담대하게 드러낸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커쇼는 과거에도 팀이 성소수자 이념을 수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저스가 2023년 5월 '성소수자의 달'(Pride Month) 축하 기획의 일환으로 한 드래그 콘연(남성 또는 여성을 가진하는 것) 단체를 명예상 수상자로 초청하자, 커쇼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커쇼는 "해당 단체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고 매우 힘들었다.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 단체가 기독교를 조롱한다는 데 있다"며 "나는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조롱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종교를 믿든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이기도회(미지역주) 오후 8: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0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후 9:1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토) 오후 6:00, (토)오후 6:30

고태형 담임목사

한글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예배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www.gmcg.org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 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령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학교예배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 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을 등이로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학여원부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com

주일 1부 08:00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화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awn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이기파) 오전 11:00
주일 2부 오전 11:00 새벽부예(임금제)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모모임(금)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 08:00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화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온혜와 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찬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6:00

이충환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 219-5434 www.sammol.org

주일 예배 1부 오후 12:30
주일 예배 2부 오후 12:30
새벽예배 오후 6:00(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주일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저녁 7:00

주일 예배 1부 오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예배 오후 5:30

임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onnuribk.com/anc

주일 예배 1부 오후 11:30 AM
주일 예배 2부 오후 1:30 PM
수요예배 오후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www.fglvchurch.com/

주일 예배 1부 오후 9: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3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www.joonganglv.org

주일 예배 1부 오후 9: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30
교육부 예배 오후 11:00
수요 말씀집회 오후 7:00
토요 새벽 예배 오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lvkcc.org/lvcc/index.php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0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것의 명장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크피(Beauty College) 최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차박 오방탕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미시간 교회 집사와 보안요원, 총기 난사 막아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예배 중 괴한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회 보안요원과 집사의 빠르고 용감한 대응으로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건은 23일 주일예배가 시작된 직후인 오전 11시경, 미시간 주 웨인시 소재 크로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에서 벌어졌다. 디트로이트 뉴스와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총격범은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채 교회로 향했고, 당시 교회 내부에는 약 150명의 교인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예배는 어린이 성경학교와 함께 진행 중이었고, 현장에는 많은 가족과 아이들이 있었다.

총격범은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차량에서 내려 교회 쪽으로 접근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했다. 교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에는 예배가 끝나 가던 시점 갑작스러운 총성과 함께 공포에 휩싸인 교인들이 의자 뒤로 숨거나 급히 뒷문으로 대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총격범이 교회에 접근하던 도중, 교회로 진입 중이던 집사가 운전하던 포드 F-150 트럭이 그를 들이받았다. 범인이 트럭에 치여 쓰러진 순간을 틈타 보안요원이 신속히 대응해 총격범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바비 켈

리 주니어 담임목사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범인의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보여 직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트럭을 운전하던 집사와 보안요원의 용기 있고 신속한 대응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회는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에 10여 년 전부터 자체 보안 인력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곧바로 미 연방수사국(FBI)과 웨인시 경찰이 출동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홍은혜 기자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2025년
대박



SCAN M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고滴滴하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택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설,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BTSSola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진유철 칼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필요, 건강, 관계 등 수많은 이유로 생기는 것으로 우리 삶에서 떨쳐내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염려”란 헬라어로 ‘메리나오’인데 ‘어수선한 마음, 분열된 마음, 갈라진 마음’이란 의미의 말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쪼개어집니다. 운동이든 연주든 중요한 만남이나 일이든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집중력이 깨어지고 활력을 잃게 됩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갈라놓고 흔들어놓는 것이기에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염려는 신앙도 약화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흐리게 만듭니다. 이렇듯 염려는 너무나 분명히 나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염려 안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열 번이고 백 번이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단호히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문제

아이들의 방학 동안 이루어지는 청소년연합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학교들은 대부분 여름이면 방학을 합니다. 더위에 지치기 때문에 육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물질적인

와 어려움을 만나 뜻대로 잘 안 될 때일수록 ‘나는 주님 안에서 염려 안하기로 한 사람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계속 담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주간에 제7회 청소년연합수련회라는 소중한 행사를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벌써 다 지나가버린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계속된 교육국 연합 여름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일이 벌써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가 되었습니다. 저도 ‘제51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를 위해 한국에 나가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많은 예배와 만남과 회의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연락이 오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하며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고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커도 기도가 깊어지는 어느 순간부터 함께하시는 주님이 주신 것들, 있는 것들이 생각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 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육체를 성전삼아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수백만 불짜리 자가용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한끼 식사비를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암행어사 마파를 가진 사람이 허름한 옷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겠습니까? 말세가 될 수록 오직 성령 충만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끄고, 삶의 모든 순간에 염려하지 않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강준민 칼럼

건강한 선인장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립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첫 가지가 생기고, 100년이 지나면 7.5m까지 자라며, 150년이 지나면 최대 15m까지 자릅니다. 선인장은 우리에게 ‘슬로우 영성’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선인장을 통해 고요함의 영성을 배웁니다. 선인장은 거친 땅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조용히 성장합니다. 영혼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고요를 좋아합니다. 영혼의 언어는 고요입니다. 고요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심령의 언어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고요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요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요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요하면 맑아지고 밝아지고 깊어집니다. 고요하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시 46:10상).

셋째, 선인장을 통해 찬양과 기도의 영성을 배웁니다. 성경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종종 두 팔을 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아말레크의 전투에서 중보 기도를 드릴 때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었습니다(출 17:11-12).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 무릎을 꿇고 손을 펴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왕상 8:54). 찬양하는 이들도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중에 임마하십니다(시 22:3).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넷째, 선인장을 통해 하나님을 양망하는 영성을 배웁니다(시 34:5; 사 40:31). 선인장은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양망합니다. 나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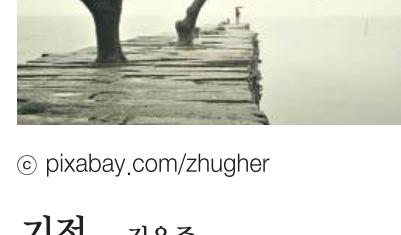
모든 가지는 빛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빛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식물은 빛 없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가지들은 끊임없이 빛을 찾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 더 열린 곳으로 뻗습니다. 가지들은 서로 빛을 나누고, 겹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자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공급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양망할 때 새 힘을 얻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도 빛이었습니다(창 1:3).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다섯째, 선인장을 통해 보이지 않는 뿌리를 가꾸는 영성을 배웁니다. 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도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와로 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와로 선인장은 깊게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사방으로 뿌리를 넓게 확장하여 수분을 섭취합니다. 보통 성장한 키 높이의 1.5배에서 2배까지 뿌리를 뻗으며, 최대 30미터까지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깊이뿐 아니라 넓게 뻗어가는 지혜도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잘 가꾸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던 선인장이 두 팔을 쭉 늘어뜨릴 때는 뿌리가 병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든 선인장은 하늘로 팔을 들어 올릴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두셨습니다. 자연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

습니다. 선인장을 통해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 지혜, 인내하며 서서히 자라는 지혜, 고요히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또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이 지혜가 매일의 삶 속에 적용되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늘바라기



© pixabay.com/zhughier

기적 - 김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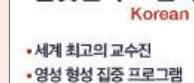
눈물이 쌓인 만큼
기쁨이 쌓여지고

아픔이 쌓인 만큼
행복이 쌓여지네

고통이 쌓인 만큼
사랑이 쌓여지고

사랑이 쌓이고 쌓여
기적을 이루네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카카오톡 체널: “탈북” 검색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유튜브 “탈북신학교” 검색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온라인 프로그램

설정적인 사업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I-20) 발급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기독교대학(BC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침례학박사(Ph.D)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인하국 홈페이지 www.mbs.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주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회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일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한국부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전화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atewayseminary.org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대학(M.A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112/admin.kore@itsla.edu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새벽기도 오전 9:30 오전 11:15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이미애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한주봉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이현우 담임목사 Los Angeles One Church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주일학교 목요중보기도회 새벽기도 오전 11:00 오전 11:00 저녁 8:00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송재봉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박지상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카오 ID : chkh0810	장경호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제임스김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김상현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기도회(주일) 오전 11:00 오후 3:00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양홍규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친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오전 11:00 오후 7:00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김창곤 담임목사 놀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차권희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cd@hanmail.net	강은덕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TEE성경공부 낮 12:00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정용암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박은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정달성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2부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8:00 오전 11:00 오후 7:30 오전 6:00(화)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서민수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장현석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지동근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2:00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 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임상훈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이석기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김요한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정찬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오후 12:00 오후 8:15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표희곤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류연주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양수용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조인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주일예배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새벽기도회 오전 11:30 오전 7:30 오전 5:30 (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김용근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정하이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오충성 담임목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김영한 칼럼

예수가 받은 십자가형,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V)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상임대표

VIII. 마지막 희생양 그리스도: 희생제사를 종식시키기 위한 희생제물

서구에서는 포스트모던 조류(潮流)가 지배하는 오늘날 정통 기독교를 복권시키는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자기 희생(self-oblation), 형벌을 엄한 사랑(tough love)으로 이해한다. 지라르는 천명한다: “예수의 십자가는 폭력의 기초적 메카니즘을 계시한다.” “예수는 희생양(scapegoat)이지만 희생제물(sacrifice)은 아니다.” “어느 복음서들에서도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희생제사로 정의되지 않는다.” 지라르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은 지속되는 희생제사(sacrificing)를 종식시킴으로 모든 지속되는 희생양 만들기(scapegoating)를 종식시킨다.

지라르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구약례위기적인 희생제의에 대해서도 예수

는 마지막 희생제물(the final sacrifice)이기에 신약 히브리서는 더 이상의 희생제사(sacrificing)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은 신화 속에서 맹위를 떨치는 폭력의 전염을 폭로함으로써 신화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다... 예수 수난 이야기에서 예수는 자신의 무고함을 만천하에 보여주면서 (비난해야 한다는) 이 의무를 ‘무효화시키고’ ‘없애버렸다.’” 세계종교들의 공통적인 신들(gods)이 희생제사와 폭력의 신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God)은 희생제사와 폭력의 신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엄한 사랑과 자비의 신이다.

인문학자요 종교문화학자로서 지라르는 형벌 대속적 개념을 인류학적 희생 개념을 빌려 해석한다. 그럼으로써 그의 희생 개념은 성경적 하나님의 독특한 화해와 사랑 개념을 약화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그가 레위기적인 희생제사 개념을 강하게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에는 폭력의 개념보다는 죄의 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구약적 신약적 대속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문신학자 이상으로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의 독특성이 여태까지 종교문화적 인류학적 희생개념인 은폐된 희생제사로서의 폭력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이러한 희생제사

에 대한 비판을 가했으며, 종말을 가져왔다고 해석하는 점에서 기독교 신학에 공헌을 하고 있다. 그리고 테드 피터스(Ted Peters)가 말하듯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의 “최종적인 희생제사”와 지라르가 말하는 예수의 “최종적인 희생양”은 기능적으로 보면 결국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를 “최종적인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속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지라르는 희생제사 개념을 신들의 폭력행위라고 거부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강조했으나, 신학자 슈바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마지막 희생제사라는 십자가의 역설을 인정한다.

판넨베르그는 지라르가 예수의 죽음을 주로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라르의 저서들은” “대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Wolf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II, Grand Rapids: Eerdmans, 1994, 422.) 예수의 십자가로 창세 이후로 희생제사가 수렴되고, 폭로되고, 전복되고 그리고 내부로부터 치유된다.

지라르는 레오폴드 루카스 시상식에서 “복음서는 신화의 죽음이다”고 역설했다. 지라르는 이사야 53장을 자신의 희생양 이론 속에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이 고난받는 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원형으로 이해하여, 이 고난받는 종인 희생양을 예워싸는 군중들을 본다. “십자가의 승리는 폭력의 희생양 순환에 대항한 사랑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선언하는 자라르의 희생양 메카니즘(scapegoat mechanism) 사상은 “현대신학이 도외시한 기독교 속죄론의 중요성을 종교인류학적으로 다시 환기시킨 점에서 기독교 복음의 유일한 독특성을 드러내었다.”

희생양 메카니즘은 역병, 전쟁과 같이 사회적 차이들을 지워 버리는 문화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작동된다. 그 위기의 책임자로서 소수자들이 지목되고 피부색, 질병, 광기 그리고 신분 등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진 집단이 희생양으로 몰린다. 예로,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했다” “조선인이 야탈 방화를 했다더라”… 등의 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의 군경과 민간인으로 조직된 자경단들이 6천명의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참상이 발생하였고,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살에 가담, 주장, 묵인하였다. 지라르의 희생양 메카니즘 이론은 현대사회에서의 집단적 폭력의 광기(狂氣)를 잘 설명해 준다(Ted Peters, Sin: Radical Evil in Soul and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94, 184 f.)〈계속〉

노예해방 기념일 준틴스 데이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 목사

6월 19일은 흑인 노예해방 기념일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였습니다. 이날은 2021년 6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 미국에서는 12번째의 연방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서명이 있기 하루 전 하원 찬반투표에서는 찬성 415와 반대 14로 통과되었습니다.

준틴스 데이 공휴일은 남북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내전, 남북전쟁의 중요한 관건은 노예제도였습니다. 1862년 링컨은 먼저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고, 1863년 1월 1일

변혁이 나타났음을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의 미완성과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언약 사상을 통해 자유를 성취함을 비교합니다.

엘라자르는 “정치 속의 언약 전통”이라는 주제로 4부작을 남겼습니다. 이 대작 중 첫 번째 책, 『성경적 이스라엘의 언약과 정체(Polity)』에서 국가 건설의 세 가지 모델을 구별하여 말합니다.

첫째는 정복(conquer) 모델이고, 두 번째는 유기체(organism) 모델이며, 셋째로는 언약(covenant) 모델입니다. 바로의 이집트나 중세의 봉건제도 그리고 현대의 나찌즘이나 파시즘은 첫 번째의 정복 모델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정치문화는 파라미드적 위계질서라고 합니다. 둘째의 유기체 모델로서 엘라자르는 그리스 도시국가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경우는 엘리트 중심의 귀족정치가 이루어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가장 활력이 넘치는 정치적 모델은 개인의 독자적 가치와 권위의 인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모델입니다. 언약 사상은 중세의 위계질서나 국가 유기체론에 저항하여

일어난 개인의 동의를 통한 계약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언약은 또한 성경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피조물인 인간을 언약의 당사자로 대우하시며, 우리의 자발적 참여를 불러일으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위상의 존중(respect)과 인정(recognition), 그리고 언약 당사자의 결단(decision)과 동의(consent)의 과정은 공동체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독재를 막는 권력분립, 그리고 각 주에 이르기까지 이를 확장시킨 것이 미국 민주의와 연방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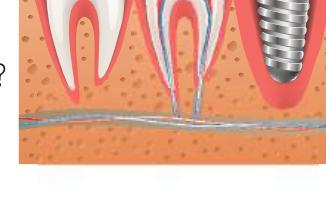
언약에서 무시되기 쉬운 부분은 “프론티어”(frontier) 곧 경계와 그 밖 미개척지입니다. 이전에는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원주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에는 흑인들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준틴스 데이는 흑인들도 어느 정도 경계선 안으로 들어왔다는 증표 같습니다. 21세기에는 경계선 안에 있지만 아직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라틴노의 해방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TV CHOSUN

朝鮮日報
창간 105 주년
미주조선일보LA
창간 6주년

TOP7 LIVE IN LA

미스터트롯3

춘길 손빈아 김용빈 천록담 추혁진

남승민 최재명

2025. 8. 24(일) 2PM, 6:30PM

WILSHIRE EBELL THEATRE 월셔 이벨 극장

TICKET OPEN

chosunticket.com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LA 티켓 예매 (213)459-6800 | (213)315-5177

미스터트롯3

Top7과 떠나는 크루즈여행
8월 25일(월) ~ 29일(금) 4박 5일

손빈아 천록담 김용빈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SHOW SHOW SHOW

미스터트롯 선상 갈라쇼, 멕시코 전통쇼, 탈렌트쇼

“푸짐한 경품잔치”

CARNIVAL RADIANCE

탈렌트쇼& 가라오케쇼

멕시코 문화센터
마리아치밴드와 민속공연 관람선상
스페셜이벤트
(오후)미스터트롯3
프리미엄
선상 공연

다양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항공권, 마사지체어, 알라스카 크루즈 등)

▶ 요금: 오션뷰 \$1,799
발코니 \$1,999▶ 포함: 4박 5일 크루즈 비용, 세금일체(포트세, 정부세),
기항지 투어(2일) + 프라이빗쇼 관람 및 행사, 크루즈 보험
*1인당/ 2인1실 기준 *예약시 원납, 캔슬시 패널티 적용여행의 명문 -
et ELITE TOUR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us.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평생 배움에 필요한 성경적 교육 철학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기 위해… ‘평생 배움’을”



존 파이퍼의 평생 배움

존 파이퍼 | 이제를 역
생명의 말씀사 | 272쪽
18,000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 탐험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광대한
세계를 주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 가고
누리고 전하도록
감각과 지성과 마음을
주셨다

이 책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정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탐색하고
적용하도록 돋는다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다양한 배움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지한 기쁨을
더할 것이다

존 파이퍼는 초대하는 글에서 이 책의 분명한 취지를 설명했다: “본서의 취지는 우선 베들레헴대학 및 신학교의 교육 이념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다(18쪽).”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저자인 존 파이퍼(그래서 책 제목도 원서랑 상관없이 ‘존 파이퍼의…’라고 불린 것 같다). 그는 베들레헴대학 및 신학교 총장으로서, 평생 그가 모든 설교와 책을 통해 외친 기독교학자(기독교 기쁨주의) 정신이 어떻게 그가 섭기는 학교 안에서 배움의 과정에 나타나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①관찰 ②이해 ③평가 ④감정 ⑤적용 ⑥표현.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이 해석학 시간에 배우는 기초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고(관찰-해석-적용), 만들을 연구하는 학생이 해부학/생물학 시간에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처럼 들리기도 한다. 파이퍼는 정확히 그것을 의도하여 이 책을 썼다. 책의 부제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말씀을 탐구하며 하나님을 끝없이 즐거워하는 6가지 배움의 기초’를 이 책을 통해 제시하려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지극히 단순한 ‘배움의 기초’가 신선하고 묵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자가 각 과정을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하기 때문이다. 결론 부분에서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관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이고 영적인 감각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해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모든 가치에 대한 참된 척도로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느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감정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용하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2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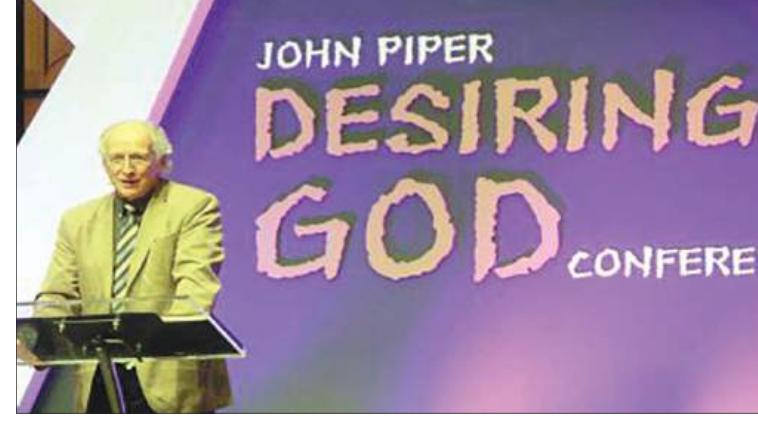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배움에 아무런 의미도 유익도 없다. 관찰할 대상이 없어지고, 관찰할

수 있는 지성 자체가 없어진다. 평가 기준을 잃어버리고, 합당한 감정을 품을 수도 없다. 우연이 아니라면 배움이 일어날 수도 없고, 배움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그래서 파이퍼는 모든 과정 하나님나라를 자세히 설명할 때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구한다. 각각 기초적인 배움 단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이퍼는 ‘감정’과 ‘적용’, ‘표현’을 설명하면서 그가 평생 강조해 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그분께 가장 큰 영광이 돌아간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되풀이한다. 저자는 항상 기독교인이 진리 안에서 느끼는 감정(특히 기쁨)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진리를 알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이 표출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에 순종하라”고만 명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요구한다. 배움은 세상과 말씀을 탐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끝없이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즐거움의 표현이 감정, 행동, 말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적용(큰 의미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감정, 적용,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딤후 3:17)”이 아닌가.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일을 할 것이다.

파이퍼는 이 책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자주 던진다. 특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배움의 주 목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로 적용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진리를 배움으로 기쁨이 채워졌다면, 그 기쁨으로 이제 시키는 일을 하라고 권하는 것처럼



▲ 존 파이퍼 목사. ©크투 DB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기쁨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을 견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파이퍼는 순종 또는 적용이 우리 기쁨을 온전하게 한다고 답했다. 순종을 위해 기쁨을 이용하는 것이라니, 순종으로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한다고 말한 셈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자 배움이 일으킨 감정이라면, 적용과 표현은 그 감정을 더 충만하게 만든다. 이것은 자칫 우리가 망각할 수 있는 평생 배움의 기초이자 유익이다. 우리는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끝없이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관찰과 이해와 평가를 갈구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결국 모든 사람은

평생 배운다. 세상과 말씀을 통하여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런데, 잘 배워야 한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존 파이퍼의 평생배움〉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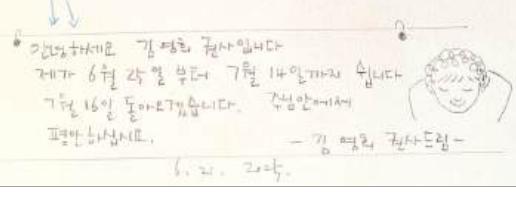
그들의 관찰과 이해, 평가와 감정, 적용과 표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기초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돋는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평생 기뻐하도록 돋는지 점검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분을 되찾아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고 헛되지 않도록, 모든 배움이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가치 있고 유익한 것으로 발견되도록 인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 25:2
May integrity and uprightness protect me,
because my hope, Lord, is in you.
PSALM 25:2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풍크 셀럽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상담심리학 프로그램 디렉터 채용공고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는 상담심리학 석사(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과 전문코칭학 석사(Master of Arts in Professional Coaching) 과정을 담당할 디렉터 교수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Ph.D. 또는 Psy.D.)

기독교 분야 석사학위 (M.Div., 신학석사 등)

한국어 및 스페인어 강의 가능

관련 분야 교수 또는 디렉터 경력 5년 이상

미국 내 취업 자격 보유

관련 전문면허 소지자 우대

■ “근무 조건”

파트타임(주 3일), 필요 시 풀타임 협의 가능

급여: 경력 및 역량에 따라 결정

■ “제출 서류”

국·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한글, 스페인어)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추천서 (목회자 1부, 교수 1부)

신분증 사본

■ “접수 마감” 2025년 7월 11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처” Steve Hong (stevehong@ptsa.edu)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울린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 | | |
|--------------------|-----------------|--------------------|
|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 부황 20회 (혈액순환) | - 훈육 1시간 |
| - 뜰 10회 (체온상승) | - 마사지 30회 |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

테라 P90의 효과

- | | | |
|------------------|--------------------|-----------------|
|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 피로에 도움 |
|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 면역건강 보조 |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 - 신진대사에 도움 |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 시력향상에 도움 |
|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 - 수면장애에 도움 | - 지방연소에 도움 | |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